

제66호(2019. 8. 30.)

2019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실태와 향후 과제

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목 차
contents

- 1.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1
- 2.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및 소비 실태 ... 7
- 3.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 현황 11
-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5

감 수	채광석 연구위원	061-820-2377	gschae@krei.re.kr
내 용 문 의	정학균 연구위원	061-820-2248	hak8247@krei.re.kr
발간물 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66호

2019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실태와 향후 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8.

발행인 | 김홍상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4년 크게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2016~2018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11.3% 증가하였고, 인증 농가 수도 9.7% 증가함.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4.9% 감소하였고, 인증 농가 수도 7.8% 감소함.
 - 201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78.5천 ha이며, 출하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450.9천 톤임.
- 2018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인증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5.4% 감소함.
 -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고 여름철 폭염으로 단수도 감소하여 출하량이 전년 대비 9.2% 감소함.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1조 2,868억 원으로 추정됨.
-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을 통한 유기농산물 소비확대전략이 필요함.
 - 2017년 세계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시장규모는 9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 미국과 유럽은 세계 유기농식품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소비 의향 및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수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등이 요구됨.
 - 잡초 및 병충해 발생이 친환경농법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가들은 복잡한 인증절차를 친환경농업 실천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를 국가가 승인해 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생산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제도 개선, 가격인하, 새로운 수요처 발굴, 수출 모색 등이 요구됨. 특히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해 공공급식, 기관 및 기업 급식 등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공공급식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군인, 임산부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01 |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현황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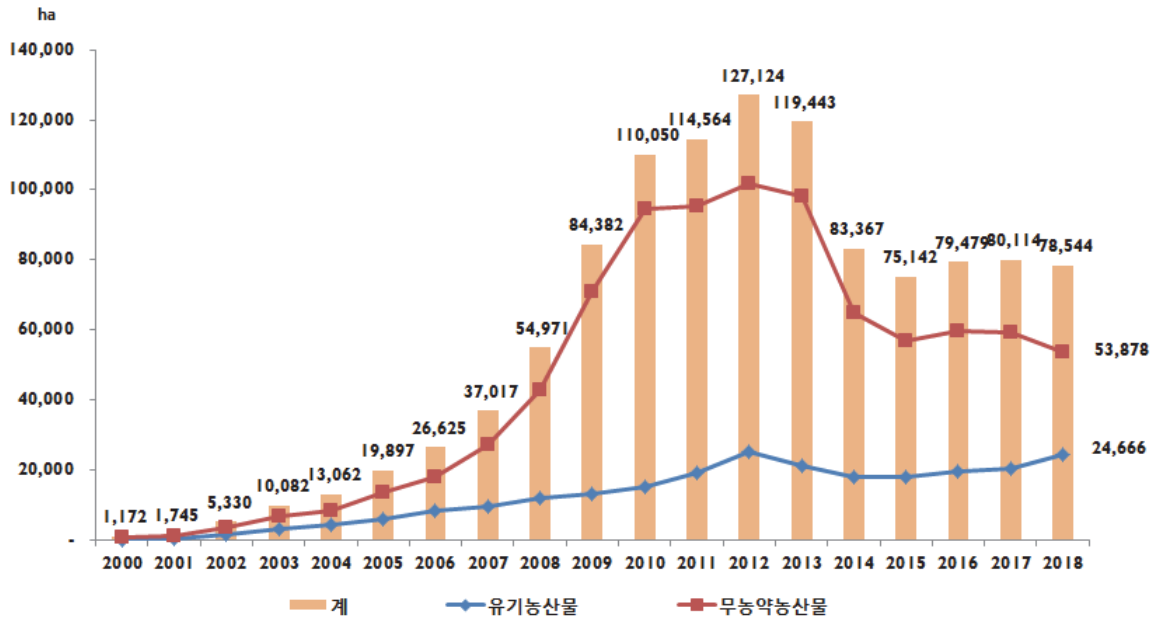
- 201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유기농산물의 인증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농약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201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4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한편 유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2016~2018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11.3% 증가하였고, 인증 농가 수도 9.7% 증가함.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4.9% 감소하였고, 인증 농가 수도 7.8% 감소함.
 -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의 감소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0.6%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표 1>.
 - 201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78.5천 ha이며, 출하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450.9천 톤임.
 -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반면, 출하량은 7.4% 감소함.
 - 무농약농산물의 인증면적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9.3%, 9.7% 감소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전년 대비 2.1천 호 감소한 57.3천 호임.
 - 2018년 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는 전년 대비 4.3천 호 감소한 41.7천 호,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는 전년 대비 2.1천 호 증가한 15.5천 호임.
 - 2018년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호당 인증면적은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ha당 출하량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표 1> 참조).
 - 2018년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의 호당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6ha임. 2018년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의 호당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1.3ha임.
 - 2018년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의 ha당 출하량은 전년 대비 22.3% 감소한 4.3천 톤임. 2018년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의 ha당 출하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6.4천 톤임.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6~ 18년 연평균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유 기	농가 수(천 호)	13.9	11.6	11.6	12.9	13.4	15.5	9.7	15.9
	면적(천 ha, A)	21.1	18.3	18.1	19.9	20.7	24.7	11.3	19.2
	호당 면적	1.5	1.6	1.6	1.5	1.5	1.6	2.9	5.9
	비중(% , A/D)	1.23	1.08	1.08	1.21	1.28	1.55	13.0	20.7
	출하량(천 톤)	117	95.7	94.4	110.1	113.5	105.1	-2.3	-7.4
	ha당 출하량(톤)	5.5	5.2	5.2	5.5	5.5	4.3	-12.0	-22.3
무 농 약	농가 수(천 호)	89.6	56.8	48.4	49.1	46	41.7	-7.8	-9.3
	면적(천 ha, B)	98	65.1	57	59.6	59.4	53.9	-4.9	-9.3
	호당 면적	1.1	1.1	1.2	1.2	1.3	1.3	3.7	-0.7
	비중(% , B/D)	5.73	3.85	3.39	3.63	3.67	3.38	-3.6	-8.0
	출하량(천 톤)	693.3	479.4	365.6	461.2	382.9	345.8	-13.4	-9.7
	ha당 출하량(톤)	7.1	7.4	6.4	7.7	6.4	6.4	-8.7	0.3
합 계	농가 수(천 호)	103.5	68.4	60	61.9	59.4	57.3	-3.8	-3.6
	면적(천 ha, C)	119.1	83.4	75.1	79.5	80.1	78.5	-0.6	-1.9
	호당 면적	1.2	1.2	1.3	1.3	1.3	1.4	2.7	5.5
	비중(% , C/D)	6.96	4.93	4.47	4.84	4.94	4.92	0.8	-0.4
	출하량(천 톤)	810.3	575.1	460.1	571.2	496.4	450.9	-11.2	-9.2
	ha당 출하량(톤)	6.8	6.9	6.1	7.2	6.2	5.7	-10.7	-7.4
경지면적(천 ha, D)		1,711	1,691	1,679	1,644	1,621	1,596	-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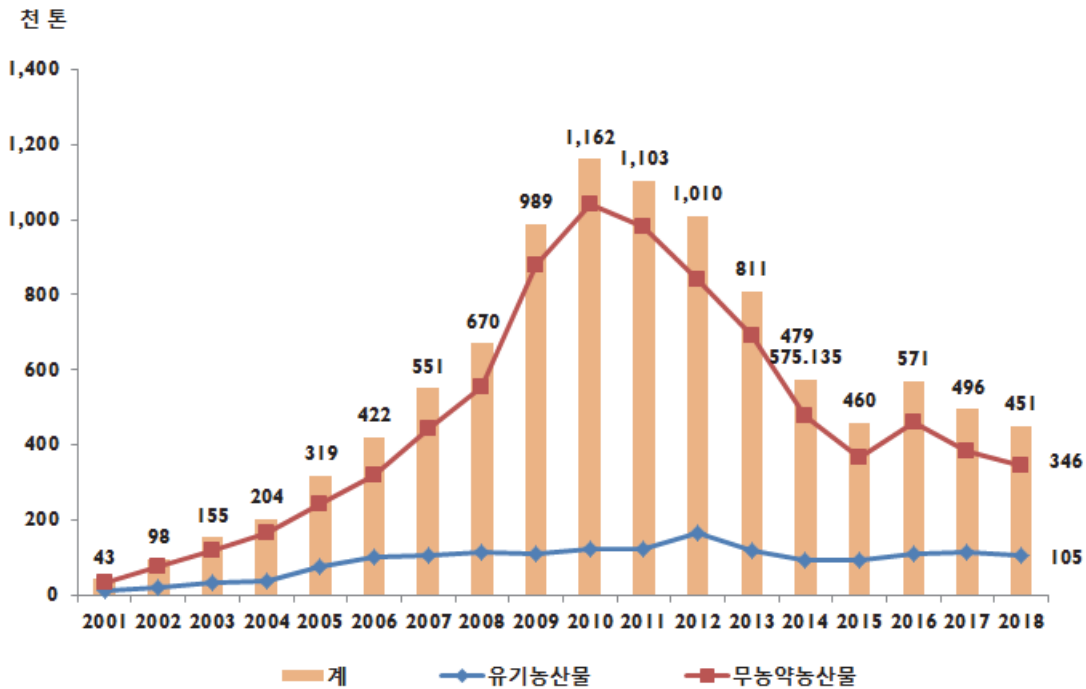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경지면적은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를 바탕으로 함.

〈그림 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그림 2〉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2018년 곡류와 채소류의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

□ 2018년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은 전년 대비 9.2% 감소율을 보였으며, 서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곡류(34.9%)가 가장 높은 출하량 비중을 차지하며, 채소류(27.0%)와 특용작물(26.3%)이 그 뒤를 따름.
- 출하량 비중이 큰 곡류와 채소류의 경우, 2018년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6.3%, 12.2% 감소하였음. 또한, 출하량 비중이 크게 줄어든 과실류의 2018년 출하량은 전년 대비 14.9% 감소한 23,218천 톤임. 특용작물과 기타작물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0.7%, 4.7% 감소하였음.
 - 곡류의 경우,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반면,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류는 유기와 무농약이 모두 감소하여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감소의 원인이 됨.
- 이에 반해 서류는 전년 대비 출하량이 5.8% 증가하였음.
 - 서류의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19.7%, 2.6% 증가함.

〈표 2〉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인증단계별 출하 현황(2018)

단위: 톤, %

분류별	유기 (비중, %)	무농약 (비중, %)	계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유기	무농약	계
곡류	56,784 (54.0)	100,674 (29.1)	157,458 (34.9)	14.0	-14.8	-6.3
채소류	31,471 (30.0)	90,442 (26.2)	121,914 (27.0)	-15.5	-11.0	-12.2
과실류	7,283 (6.9)	15,935 (4.6)	23,218 (5.1)	-17.8	-13.4	-14.9
서류	3,594 (3.4)	13,553 (3.9)	17,148 (3.8)	19.7	2.6	5.8
특용작물	2,476 (2.4)	116,016 (33.5)	118,493 (26.3)	-74.1	-5.8	-10.7
기타	3,464 (3.3)	9,191 (2.7)	12,655 (2.8)	-31.0	11.3	-4.7
합계	105,072	345,811(100.0)	450,886 (100.0)	-7.4	-9.7	Z-9.2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경기, 전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

-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5.8%인 43,828ha가 전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경기와 전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각각 6,122ha, 5,858ha로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지역과 전남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각각 전년 대비 1.4%, 2.0%씩 증가한 반면, 이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 경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강원(-13.9%)과 제주(-11.1%)가 그 뒤를 따름.
 -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의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44.3% 증가하여 지역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20.9%), 충북(7.6%), 경남(7.4%), 전북(5.8%)이 그 뒤를 따름. 앞서 언급한 5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가장 큰 전남의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인증면적은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됨.
- 전남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의 경지면적 비중은 1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제주(3.6%), 강원(3.4%), 경기(3.4%)가 그 뒤를 따름.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경지면적 비중은 4.9%로 나타남.

〈표 3〉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및 출하량(2018)

단위: ha, 톤, %

구분		유기	무농약	계	전년 대비 인증면적 증감률			인증 면적 비중	경지 면적 비중
					유기	무농약	계		
강원	면적	1,290	2,208	3,498	-4.9	-18.3	-13.9	4.5	3.4
	출하량	7,733	12,735	20,467					
경기	면적	1,693	4,429	6,122	-3.8	3.5	1.4	7.8	3.4
	출하량	10,532	72,791	83,322					
경남	면적	1,804	3,103	4,906	7.4	-10.7	-4.8	6.2	3.1
	출하량	7,467	28,213	35,681					
경북	면적	1,038	2,877	3,915	-4.9	-17.9	-14.8	5.0	1.5
	출하량	7,324	54,138	61,461					
전남	면적	11,500	32,328	43,828	44.3	-7.6	2.0	55.8	14.6
	출하량	32,304	94,320	126,623					
전북	면적	2,125	3,733	5,858	5.8	-12.6	-6.7	7.5	3.0
	출하량	11,242	18,708	29,949					
충남	면적	2,877	2,378	5,255	20.9	-21.2	-2.6	6.7	2.4
	출하량	15,802	25,057	40,860					
충북	면적	1,039	1,998	3,038	7.6	-12.1	-6.2	3.9	3.0
	출하량	7,737	31,952	39,689					
제주	면적	1,300	823	2,124	-11.2	-10.9	-11.1	2.7	3.6
	출하량	4,934	7,900	12,835					
계	면적	24,666	53,877	78,544	19.3	-9.4	-2.0	100.0	4.9
	출하량	105,075	345,814	450,887					

주: 광역시의 자료는 도별 실적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통계청.

02 |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및 소비 실태

201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1조 2,868억 원

□ 2018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1조 2,868억 원 수준임.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인증단계별·품목별 출하량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대표 15개 품목 가격 자료와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으로 산출함.¹⁾

〈표 4〉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단계별·품목별 시장 거래규모(2018)

단위: 억 원, %

구분	유기농	무농약	계	2017년 시장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곡류	2,125	3,164	5,289	4,627	14.3
채소류	834	2,056	2,890	3,295	-12.3
과실류	329	605	933	1,103	-15.4
서류	199	622	821	628	30.8
특작·기타	274	2,660	2,934	3,956	-25.8
계	3,761	9,107	12,868	13,608	-5.4

자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장 유통 비중과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15개 품목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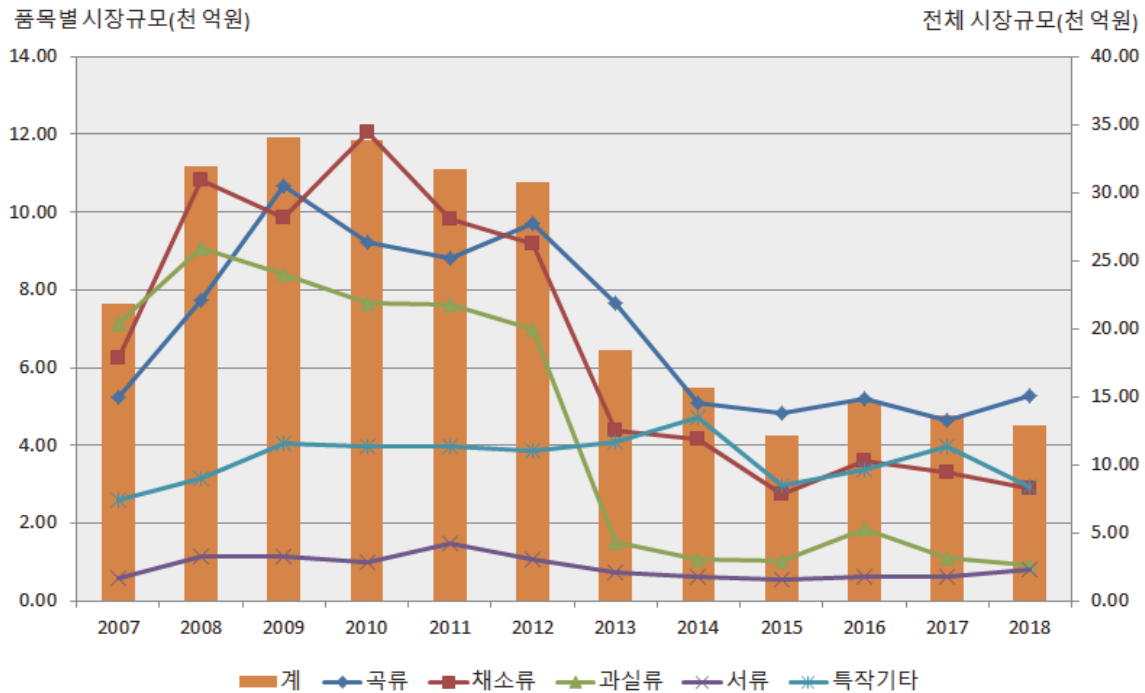
- 곡류의 시장규모는 품목 중 가장 큰 5,289억 원으로 계측되었으며, 채소류(2,890억 원)와 특작·기타(2,934억 원)가 그 뒤를 따름.
- 시장규모의 변화는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특작·기타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25.8%), 그 뒤를 과실류(-15.4%)와 채소류(-12.3%)가 그 뒤를 따름. 이에 반해 서류(30.8%)와 곡류(14.3%)의 시장규모는 전년과 대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10년간의 품목별 시장규모 변화는 아래 〈그림 3〉과 같음.
 - 우선,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특히, 2013년 과실류와 채소류 그리고 곡류의 급격한 하락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감소의 원인이

1) 대표 15개 품목은 쌀, 풋고추, 무, 배추, 상추, 토마토, 딸기, 오이, 양파, 사과, 배, 감귤, 감자, 고구마, 그리고 팽이버섯임. 각 품목의 가격 단위를 원/kg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추 1포기는 3kg, 무 한개 0.8kg, 감귤 10개 1kg, 배 10개 3kg, 오이 10개 1.5kg이라 가정함. 각 품목별 기타 작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각 품목에 속한 대표작물 3개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였으며, 3개의 대표작물은 출하량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마지막으로 배의 경우, 가격자료가 없어 작년 가격자료를 이용하였음.

됨. 특히 채소류는 2013년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최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됨.

- 최근 3년간 서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시장규모가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특작·기타의 시장규모 변화는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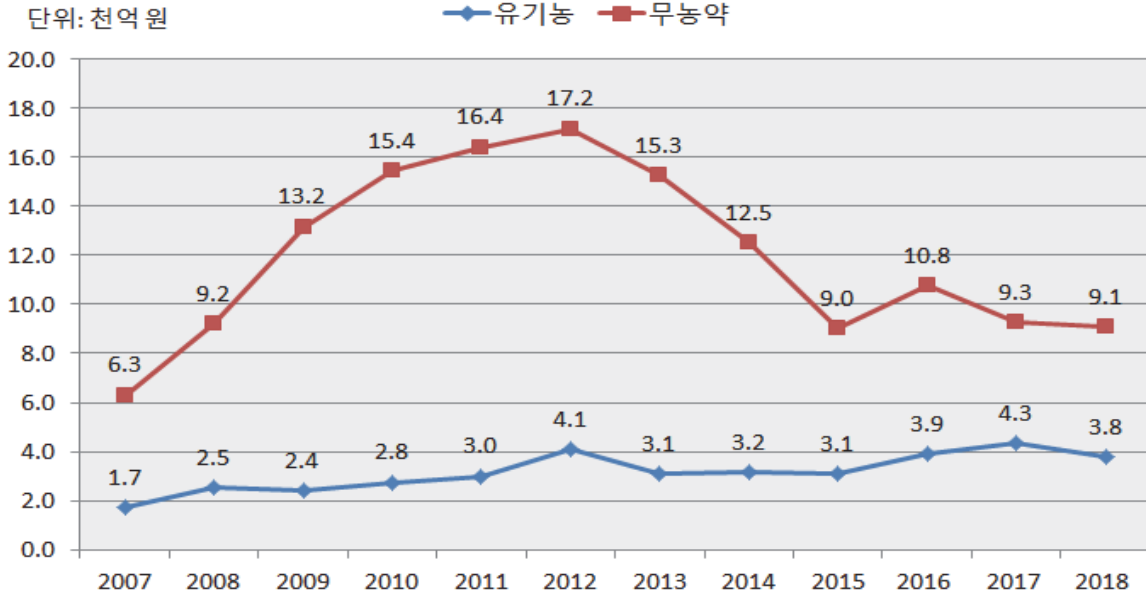
〈그림 3〉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변화



자료: 2015년 이전에 추정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 비의 도정률을 감안해 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출하량과 마찬가지로 무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71%를 차지하여, 무농약농산물의 시장규모 변화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됨.
 - 무농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12년에 1조 7,175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9,107억 원에 그침.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의 감소에도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2007년 1,719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3,761억 원에 이룸. 단, 2018년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3% 감소하여 2012~2013년 이후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유기농산물 시장이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9.2%까지 증가함.

〈그림 4〉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변화



자료: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를 추세 분석한 결과임. 2015년 이전에 추정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 버의 도정률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뢰도는 평균 약 70점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17점이나 낮은 54.5점으로 조사되었음(표 5).

〈표 5〉 5년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신뢰도 조사(100점 만점)

구분	신뢰도	매우 신뢰함	약간 신뢰함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2013	66.4	10.6	55.8	22.8	10.1	0.8
2014	70.1	17.2	51.8	25.5	5.3	0.2
2015	68.3	14.8	51.3	26.8	7.1	0.2
2016	71.5	14.3	62.3	18.8	4.2	0.3
2017	54.5	3.3	38.4	33	23.5	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8), 임영아 외(2018) 재인용.

□ 농식품 구매 시의 국가인증제도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기가공식품 및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인증제도 고려율은 2013~16년에는 각각 평균 약 75%, 78% 수준이었음. 그러나 2017년에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이 수치가 63%, 70%로 감소하였음. 한편, GAP 인증제도 고려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표 6).

○ 이러한 현상은 친환경농업 및 유기가공식품산업의 성장을 매우 위협하는 요소이며, 농식품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임영아 외 2018).

〈표 6〉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고려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유기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	GAP
2013	사례수	7,548	930	1,074	256
	고려율	78.5	74.2	74.1	46.1
2014	사례수	8,153	958	1,114	399
	고려율	72.1	69.7	77.6	52.1
2015	사례수	8,638	981	1,149	429
	고려율	80.8	85.0	83.5	54.1
2016	사례수	6,546	968	1,165	792
	고려율	69.3	71.6	78.7	64.5
2017	사례수	6,795	928	1,137	886
	고려율	63.2	62.5	69.5	6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8), 임영아 외(201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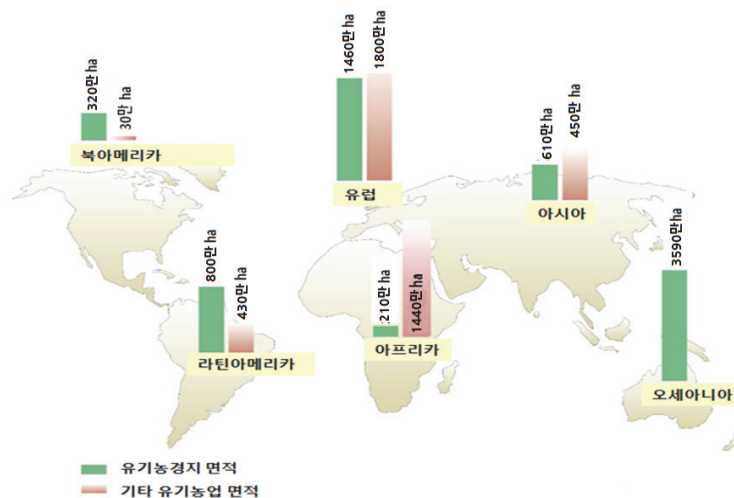
03 |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 현황2)

2017년 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

□ 2017년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4%, 총 면적 6,980만 ha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함.

- 2017년 유기농경지 면적은 1999년 대비 6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함.
 - 전년 대비 증가면적은 1,170만 ha로 대부분 호주의 유기농경지 증가분 850만 ha로 인한 것임.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은 전년 대비 약 70만 ha가 증가하여 32%의 증가율을 보였고, 아르헨티나는 전년 대비 약 40만 ha가 증가하여 12%의 증가율을 보임. 러시아와 인도에서도 각각 약 30만 ha가 유기농경지로 전환됨.
- 야생채집지 및 양봉지역 등 기타 유기지역 면적은 4,240만 ha로 유기농경지와 기타 유기지역을 포함한 총 유기면적은 11,220만 ha임.
-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의 50%는 오세아니아, 21%는 유럽에 위치하여 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의 70%가 두 대륙에 집중됨. 오세아니아의 유기농경지 비중은 8.5%, 유럽은 2.9%(유럽연합 7.2%)이며, 다른 대륙의 비중은 1%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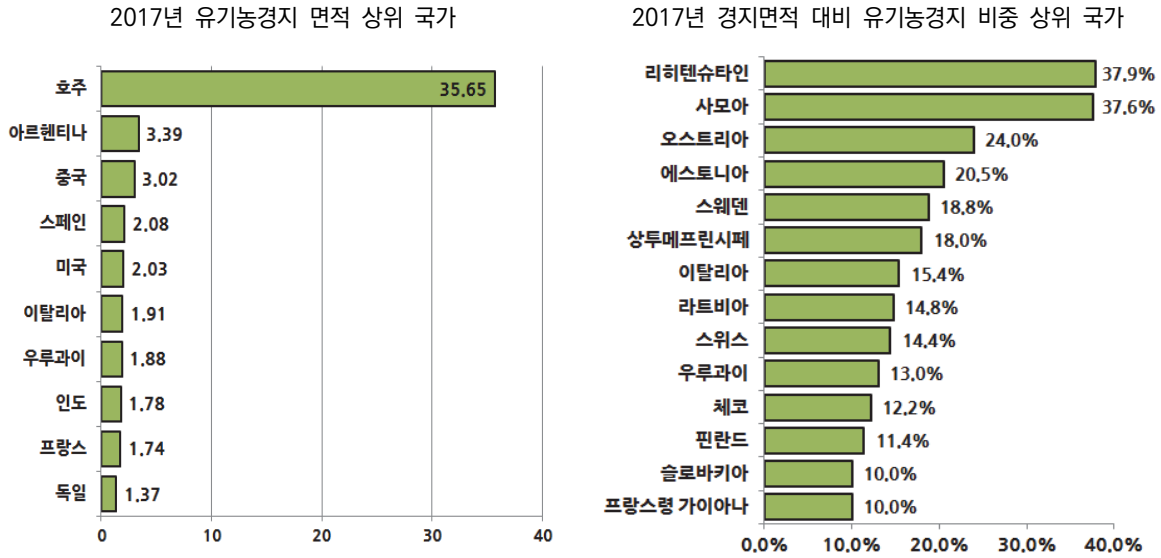
〈그림 5〉 2017년 세계 유기농업 실천면적 분포



자료: FiBL and IFOAM(2018),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 이 장의 내용은 FiBL and IFOAM(2018)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였음.

〈그림 6〉 2017년 유기농경지 면적·비중 상위 국가



자료: FIBL and IFOAM(2018).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표 7〉 2017년 세계 유기농업 현황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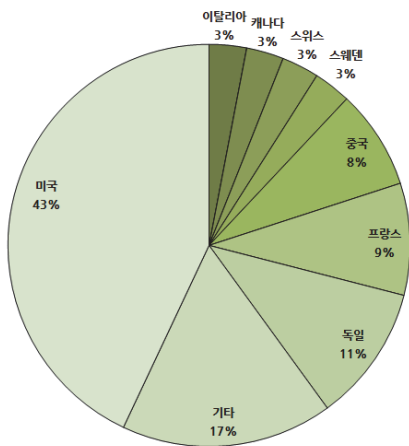
지 표	총 규모	주요 국가
유기농업 시행 국가	178개국(2016) → 181개국(2017)	
유기농경지	1,100만 ha(1999) → 5,780(2016) → 6,980(2017)	호주: 3,560만 ha 아르헨티나: 340만 ha 중국: 300만 ha
농경지 중 유기농경지 비중	1.2%(2016) → 1.4(2017)	리히텐슈타인: 37.9% 사모아: 37.6% 오스트리아: 24.0%
기타 유기농업지역 (주로 야생채집)	4,100만 ha(1999) → 3,990(2016) → 4,240(2017)	핀란드: 1,160만 ha 잠비아: 600만 ha 탄자니아: 240만 ha
생산자 수	240만 명(2015) → 270(2016) → 290(2017)	인도: 835,000명 우간다: 210,352명 멕시코: 210,000명
유기농 시장규모	179억 달러(2000) → 897(2016) → 970(2017)	미국: 452억 달러(400억 유로) 독일: 113억 달러(100억 유로) 프랑스: 89억 달러(79억 유로)
일인당 소비액	11.1달러(2015) → 12.1(2016) → 12.8(2017)	스위스: 325달러(288유로) 덴마크: 315달러(278유로) 스웨덴: 268달러(237유로)
유기농업 규정 보유국	87개국(2016) → 93(2017)	

자료: FIBL and IFOAM(2018).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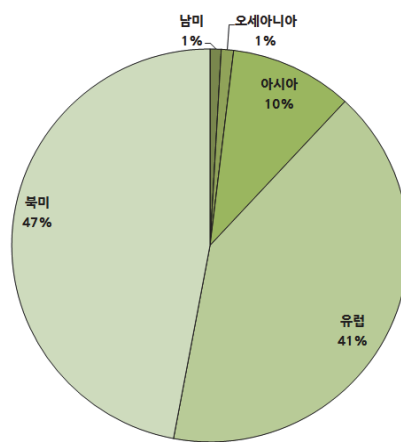
- 호주의 유기농경지 면적이 3,560만 ha로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340만 ha)와 중국(300만 ha)이 그 뒤를 따름.
 - 가축 방목지는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가 비교적 적어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한 편임. 농경지의 97%가 방목지인 호주 농업 구조의 특성이 유기농경지 면적 확대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 유기농경지 면적 상위 10개국이 전 세계 유기농경지의 75%(약 5,500만 ha)를 차지함.
- 유기농경지 면적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주로 유럽 혹은 도서 국가임.
 - 유기농경지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리히텐슈타인으로 37.9%의 농경지가 유기농경지이며, 이어 사모아(37.6%), 오스트리아(24.0%), 에스토니아(20.5%), 스웨덴(18.8%) 순임.

〈그림 7〉 2017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분포

2017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국가별 분포



2017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대륙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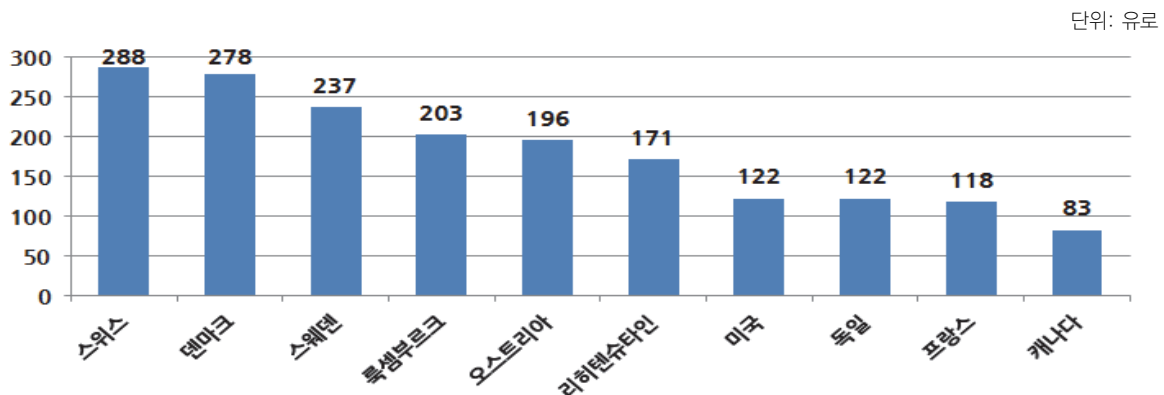
자료: FIBL and IFOAM(2018).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7년 세계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규모는 9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

□ 2017년 세계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규모는 9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 지난 20년 동안 세계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은 적절한 속도로 증가해왔다는 평가가 있음. 그러나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이 4배로 확대된 반면, 생산 면적 증가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의 90%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유기농식품 소비의 대부분이 소수 고정 소비자층에서 발생하는 등 수요의 편차가 큼(〈그림 7〉 참조).
 - 또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많아지고, 환경 안전 기준을 지키는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eco-label) 상품과의 경쟁상황에도 놓여 있음.
-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미국이 400억 유로로 가장 크며, 이어 독일(100억 유로), 프랑스(79억 유로), 중국(76억 유로) 순임.
 - 전년 대비 두 자리대 시장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18%), 스페인(16.4%), 리히텐슈타인과 덴마크(15%)임.
- 유기농식품 시장 점유율은 덴마크(13.3%)에서 가장 높고, 이어 스웨덴(9.1%), 스위스(9.0%), 오스트리아(8.6%), 룩셈부르크(7.3%)임.
-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스위스(288유로), 덴마크(278유로) 스웨덴(237유로) 순임.

〈그림 8〉 2017년 1인당 유기농식품 구입비중 상위 10개국



자료: FiBL and IFOAM(2018).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04 |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등이 요구됨

-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4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2016~2018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11.3% 증가하였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이 연평균 4.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정체됨.
 - 친환경농산물 생산 정체 요인을 정확히 밝히고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비용 절감 등이 요구됨.
 - 농가조사 결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39.9%)로 나타남(김창길 외 2016). 구체적으로 농가들은 잡초관리, 병해충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요 품목별 생산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제 선진농가, 국내외 주요 친환경재배 매뉴얼, 해외사례 수집, 국내 우수 친환경농가를 선정 및 발굴하여 경제성 및 성공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농가들은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복잡한 인증절차를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음. 코덱스 가이드라인, 미국, EU와 우리나라 인증규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규정이 보다 복잡함. 예를 들어 토양의 유해성분 검사, 배지의 유해성분 검사, 용수의 수질 검사, 토양 검정 등의 검사를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결과 중심의 인증으로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확대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인근 논에서의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으로 불리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함. 그러므로 과정 중심 인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과정 중심의 인증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인증방법의 편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또 하나의 애로사항으로는 친환경농자재의 제조 및 확보임. 친환경농자재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품목을 기준으로 13.0~18.8%임. 친환경농자재 관련 생산비를 낮춘다면 경영개선 효과가 크며 비용최소화 전략이 될 수 있음. 현재 자가제조(허용물질) 친환경농자재를 국가가 승인해 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보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소비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소비 의향은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매 비경험자의 소비 의향이 두드러지게 감소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잠재적 소비계층이 얇아진 것으로 나타남(김창길 외 2012, 2016).
 - 최근 5년간 조사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신뢰도가 급감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약 등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 취소되며, 인증 취소 처분을 3회 받은 농가는 인증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92.8%)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구매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친환경농산물 구매 애로사항 중 1순위를 ‘가격’으로 꼽아 향후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김창길 외 2016). 또한 소비자 인식 전환을 통해 지불의향가격을 확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격 인하가 요구되나 유통마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가격 인하를 위해 유통규모의 규모화 및 조직화가 필요함.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마진율을 비교할 경우 8.0~34.9%p의 격차가 발생함.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유통비용 절감이 필요함.
 - 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판매 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급식’ 응답 비중이 줄고, 병원 및 기업 급식, 군대 급식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공공급식, 기관 및 기업 급식 등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군인, 임산부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세계 유기농식품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 지난 20년 동안 세계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배 수준이 되었으나 생산 면적 증가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세계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시장규모는 9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의 90%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들 국가 소비자들의 소비 의향 및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